

민주광장

- ㉔ 정치적 올바름과 영화

민주광장은 하나의 소재에 관한 두 가지 시선을 담아내는 코너입니다.

최근 디즈니 애니메이션인 <인어공주>의 실사 영화 트레일러가 공개됐다. 원작에서 백인인 ‘에리얼’을 흑인 배우인 ‘할리 베일리’가 연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인어공주 역의 캐스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영화에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을 투영하는 것에 대한 논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올바름’을 위해

심정혁(미디어21)

미디어 내 PC의 의의는 ‘편견이 담긴 표현을 막음으로, 이용자가 편향된 시선 없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끔’에 있다. 디즈니는 자체 제작 작품뿐 아니라, 픽사나 마블 등 산하 제작사의 영화까지 PC를 철저히 고려하는 행보를 보였다. 과거에는 찾아보기 힘들거나, 특정한 역할만을 맡았던 유색인종, 동성애자 등의 소수자 캐릭터를 꾸준히 출연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 역시 계속 커져왔고, 이번 <인어공주> 실사 영화에서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가 에리얼 역을 맡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불만이 극에 달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인어공주와 디즈니에 분노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특정 인종을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편향된 시선으

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일까? 지난 디즈니의 작품 중 <모아나>는 폴리네시아인 주인공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화를 소개했고, <주토피아>는 동물을 소재로 소수자나 편견, 사회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그려냈으며 <블랙 팬서>는 흑인 영웅과 흑인 문화를 등장시켜 13억 달러가 넘는 흥행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 세 영화는 PC로 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함에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은 작품들이었다.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는 1989년 작품이다.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에리얼’은 하얀 피부와 붉은 머리를 가진 캐릭터로 각인됐다. 이제 사람들은 에리얼이 하얀 피부를 가져서 인어공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얀 피부를 가진 인어공주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어

떤 이유도 없이 작위적으로 흑인 ‘에리얼’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심각한 인지부조화를 느꼈을 것이다. 지금 디즈니에 쏟아지는 분노는 본인들이 알던 인어공주와 아예 다른 캐릭터가 등장했기 때문이지, 인종에 대한 분노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올바름’이라는 이름 아래 디즈니를 옹호하는 일부 언론은 이를 인종차별로 몰아가며 또 다른 차별을 양산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실천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역효과를 더 크게 양산한다면 좋은 전략이라 말할 수 없다. 기존의 작품에 억지로 PC를 주입하거나, 작품의 몰입을 해치는 PC를 등장시켜 ‘PC에 대한 편견’을 만들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진정한 ‘올바름’을 가진 작품들이 나올 수 있기를 고대한다.

착한 인어공주, 나쁜 인어공주

이승민(정경대 정의20)

한 작품의 스토리나 등장인물 등을 바꾸는 것은 전적으로 창작자의 자유다. 그것은 옳고 그름, 착함과 나쁨에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기에 원작과의 다름이 악일 수 없고, 같음이 선일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아기 돼지 삼 형제 이야기의 가장 대중적인 결말은 늑대가 셋째 돼지의 집을 굴뚝으로 침입하다 난로에 달귀지는 버전일 것이다. 그러나 판본에 따라 늑대가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돼지들과 평화롭게 사는 버전도 있고, 첫째와 둘째 돼지가 셋째의 집으로 도망치는 버전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느 버전은 선이고, 다른 버전은 악하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을까? 이외에도 수많은 전래동화 및 이야기들이 때로는 줄거리에, 때로는 등장인물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각기 다른 버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다만 이러한 리메이크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는다. 바로 원작자의 동의다. 만약 우리나라 원작의 드라마를 중국에서 조금만의 변경을 가해 자신들만의 버전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괴리감과 분노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정식으로 판권을 구입해 프로그래를 리메이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원작과의 조금 다른 판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작자의 동의를 거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캐릭터성이나 내용 변경은 감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흑인 인어공주’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그 제작자들을 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문학이 그것을 읽는 독자들의 소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디즈니 실사영화 <인어공주>는 자사

의 애니메이션을 리메이크했기에 원작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지만, 흑인 인어공주는 그것을 소비하는 독자에게 지나친 괴리감을 안겨주기에 비판을 받는 것이다. 독자가 없는 문학은 그 자체로서는 전혀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즉, 문학의 특정 내용 변경이 진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작자와 수요자(=팬)의 일관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는 시장에서 증명된다.

흑인 인어공주를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변경의 방식이 PC의 껍질을 쓰고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수요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변경이라는 점에서 비판받는 것이다. 그것이 원작자의 동의를 거쳤는지, 거쳤다면 시장에서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지, 그 결과는 결국 시장에서 나타날 것이다.

고대인의 서재

15세기 중엽의 조선과 피렌체 - 1453년의 계유정난, 1478년의 파치 음모 -



《메디치가 살인 사건의 재구성》
라우로 마르티네스

1453년(단종 1) 10월 10일, 세종의 둘째 아들 36세의 수양대군 이유는 집에서 부리는 하인 한 명만 데리고 김종서의 집으로 갔다. 70세의 정치 베테랑은 첩보를 맞고 쓰러졌다. 이틀간에 걸친 무시무시한 유혈 참극을 통해 수양과 그의 동지들은 권력을 거머쥐었다.

1478년 4월 26일 일요일, 한 무리의 암살자들이 피렌체의 비공식적 국가원수 메디치가 로렌초와 그 동생 줄리아노를 대성당에서 살해하려 했다. ‘파치 음모’라 알려진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피의 4월’이라 할 정도로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뒤를 이었다.

약 20년의 간격을 두고 동양의 조선과 서양의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두 사건은 해당 국가의 역사상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세조는 찬탈(篡奪)이기도, 또 정난(靖

難)이기도 했던 비참한 계기를 통해 즉위한 후 조선의 체제를 완성하며 인간계를 초월한 절대 군주를 지향했다. 피렌체는 이 사건을 계기로 13세기 이래 문화적 활력과 정치적 활기가 넘쳐나는 공화국에서 정치적 범죄자를 거침없이 탄압하며 메디치가 로렌초의 권력을 영구히 확보하고자 시도하는 독재국가로 변해갔다.

《메디치가 살인 사건의 재구성》(라우로 마르티네스 지음/김기협 옮김, 푸른역사, 2008)은 15세기 중엽 조선과 동시대에 전개된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가 살인 사건, 즉 ‘파치 음모’를 다뤘다. 본서의 저자 라우로 마르티네스는 사건의 배경으로 당시 공화국 피렌체와 교황·나폴리 왕국과의 관계를 살피고, ‘파치 음모’를 전후한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의 정치·사회의 변화를 고찰하였으며, ‘파치 음모’가 이후 역사에 미치는 의미 등을 평가했다. 특히 필자는 ‘파치 음모’를 흡사 우리가 동시대를 사는 사람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했다. 필자가 함팍 함팍 수를 놓듯 해당 사건을 오롯하게 그려내는 부분은 가히 본서의 압권이라 할 것이다. 저자는 지루하리만치 치밀하게 ‘파치 음모’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시기 이탈리아 피렌체 역사의 변화와 발전을 통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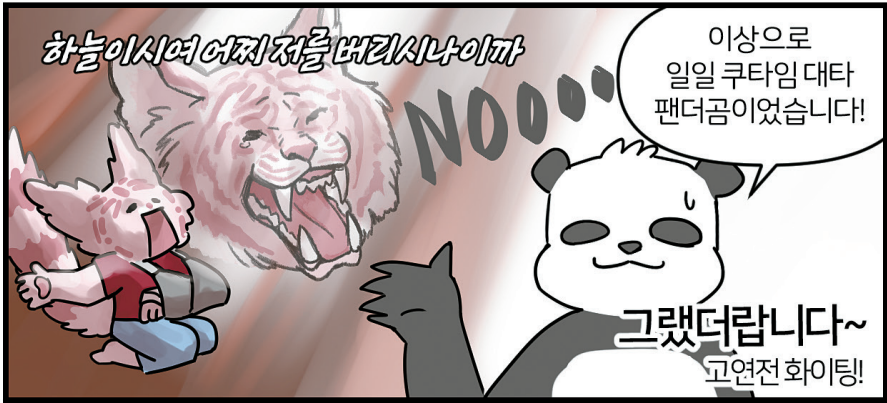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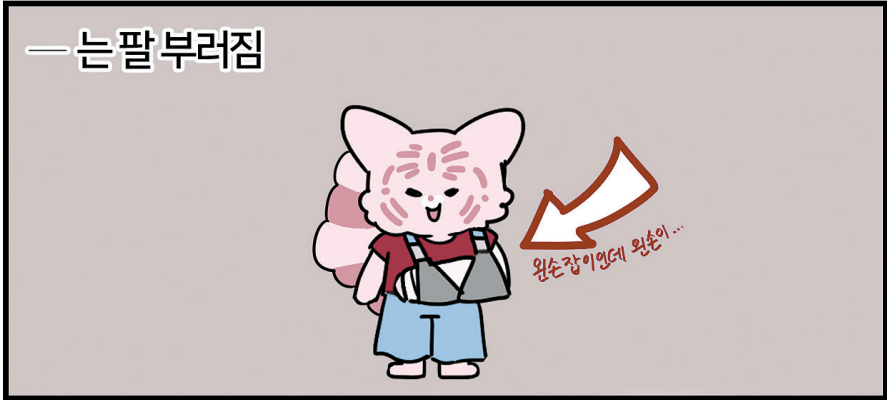
역사학은 기록을 다루는 학문이다. 그 기록은 시간과 공간과 사람이 결합하여 그려낸 실상이다. 이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이다. 최근 필자는 앞서 언급한 1453년의 왕위 찬탈로 집권의 정당성을 의심받는 세조에 대한 평전으로 (세조, 폭군과 명군 사이)(푸른역사, 2022)를 출간했다. 마침 원고 청탁을 받자, 동시대 ‘파치 음모’를 통해 이탈리아 피렌체의 정치·사회·문화의 변화 양상을 천착한 《메디치가 살인 사건의 재구성》이 떠올랐다. 이 책은 이전에 대단히 흥미 있게 읽었던 데다가, 저자처럼 ‘살아있듯’ 생생하게 서술하기를 소망해 온 터였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에게 추천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필자는 조선과 약9000km 떨어져 있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벌어진 파치 음모를 찬찬히도 파고든 이 책을 통해 ‘역사의 변화와 발전’이란 결국 ‘인간의 주체적 행위’로 말미암아 촉발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확신하기 바란다. 아울러 역사학이 주는 희열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음을 느꼈으면 한다.

김순남 본교 교수·문화유산유학학부

KUTIME <218화>

장정윤 전문기자



고대신문을읽고 1958호(2022년 9월 26일자)

열일 중인 취재부, 인권연대국과 전쟁 중인 데스크?

1958호를 읽으면서 두 번 매우 놀랐다. 첫 번째는 1면. 매번 지면 상단에 위치하던 지면 안내가 우측 하단에 작게 들어갔다. 일견 실수인 줄 알았지만, 곧 지면 레이아웃을 바꾼 만한 까닭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지면 안내를 축소해 생겨난 자리를 보으면 기사가 모두 채운 것이다. 융합전공생 차등 대우, 지도교수제 실효성 부족, 세종캠퍼스 학생회관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은 1면을 사실상 ‘독점’했다. 이들 모두 갑자기 생겨난 사건·사고나 거대한 이벤트를 다룬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기자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찾아낸 기획 기사라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더욱이 세종캠퍼스 빼놓지 않았다. 한 학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특종은 아니더라도 성실함이 돋보였다.

특정 부서의 기사가 1면을 독점했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다른 부서의 기사들은 1면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의미다. 그런 면에서 사회면과 학술면을 담당하는 기획부의 분발을 촉구하고 싶다. 일회용품 보증금제와 우주 개발은, 취재에 들인 품과 정성을 차치하더라도, 주제 측면에서 너무나 뭉뚱하다. 특히 우주 개발은 시의성 측면에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다누리호 발사가 8월 5일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여름방학 때 준비한 아이템을 하기 중에 떨어진 느낌이 다분하다. 그렇지만 우주 산업과 국내 대학을 연결한 지점은 학보사에 걸맞은 신선한 접근이었다. 또한 안효정 연구원의 인터뷰는 기획에 당위성을 불어넣는다. 현직 항우연 연구원을 섭외했었는데 데스크 입장에서 어떻게 기사를 ‘킬’할 수 있겠냐. 더 날카로운 주제라

면 어떤 기사가 탄생할지 기대가 된다. 두 번째로 놀란 지점은 여론 면이다. 사실과 석담춘추가 동시에 인권연대국을 그야말로 ‘맹렬하게’ 때리고 있다. 사실은 “인권연대국의 자정 능력은 상실된 상태”라며 “오히려 장애인 인권과 이동권 제고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정은 이제 불가능”하니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석담춘추 역시 인권연대국의 자진 사퇴 가능성을 내비치며, 한 학생의 입을 빌려 “일만 키우고 정작 하는 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표현만 다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두 글 모두 동일 인물이 썼다고 해도 믿을 것 같다.

한 가지 궁금증이 든다. 데스크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실과 석담춘추 모두 같은 논조로 다룬 심대한 사안에 대해, 왜 기사를 한 줄 찾아볼 수 없을까. 기사로 쓸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굳이 ‘감정전’에 뛰어들 이유가 있었을까. 한 달 사이에 인권연대국에 대한 사실의 표현은 더욱 날이 서고 격해졌다. 게다가 이번에는 ‘화력’마저 두 배로 늘렸다. ‘고대신문은 인권연대국과 전쟁 중인가?’ 1958호를 덮으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다. 잘 쓴 기사로 기억될 신문이 아니라 아쉬울 따름이다.

조민호(경제학과 16학번)

